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3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56 호

총지교도의 '통큰' 회사로 승강기 세운다

부산 덕화사 김기태 각자,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산 북부지역 대표 사원으로 밀교 대중교화의 꽃을 피워온 덕화사(주교: 법상인 전수)가 2006년 신축 헌공가지불사 이래 15년여 만에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불사를 봉행한다. 이번 불사는 평소 교도들의 신생활 편의와 교화와 제도를 위

해 승강기의 필요성을 생각해 오던 덕화사 교도 김기태 각자의 통 큰 회사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김기태 각자는 덕화사 신정회 윤숙희 회장의 배우자다. <관련 인터뷰 7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불교전통건축양식에 종단 고유의 아자관

과 만다라, 외부단청 등으로 장엄된 덕화사는 새로운 종단사원건축의 양식의 한 획을 그었다할 만큼 편리성과 예술성을 높게 평가 받아왔다. 다만 서원당이 3층에 있어 특히 어르신 교도들의 고층이 예상되어 이미 종단 차원에서도 승강기의 필요

성이 제기 되어왔다.

승강기는 덕화사 사원 후면 오른 쪽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사이에 세워질 계획이다. 2월 중순 현재 김기태 각자는 업체를 선발하여, 설계와 견적을 검토 중이며, 오는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교 법상인 전수는 “큰마음을 내어주시는 각자님과 윤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강기 불사로 다시금 신심 깊고 역사 깊은 덕화사가 비로자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도 “김기태 각자님의 자비와 보시행은 덕화사 뿐만 아니라 종단 모든 교도들에게 귀감이 되어 사무량심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강기 불사가 추진되는 동안 종단에서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

2월 19일부터 전국 사원서 봉행



전국 각 사원에서 지난 2월 19일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어갔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진호국가 불공도 함께 봉행하며 오는 4월 8일에 회향한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총기 4년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하면서 비롯되었다. 49일 불공 정진의 주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조상을 위한 천도 불공과 자녀의 성공을 소원하는

자손 불공이 있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작년에 이어 '신종 코로나19 조속 소멸'을 서원 사항에 추가하여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다 함께 서원했다.

본산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는 설법에서 “상반기 49일 불공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업장 소멸을 위한 불공으로 총지중의 모든 스승과 교도가 49일 동안 용맹정진해야 한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일신행 대전수 열반 1주기 추선불사

2월 27일, 영천 단음사에서 봉행

수행과 전법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 오다 지난해 열반에 든 일신행 대전수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2월 26일 영천 단음사에서 주교 남해 정사의 집공으로 통리원장을 비롯한 전국 스승들과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신행 대전수의 업적을 기리며, 스승의 숭고한 삶이 육신을 떠나 영원한 열반에 들기를 추선



생전 일신행 대전수

하고, 유지를 받들고 이어나갈 것을 다함께 서원했다.

제154회 임시 중앙종의회 수인사서 개최

사원 리모델링 등 주요 안건 결의



자연 노후와 지진피해로 인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통리원과 수인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곧 진행된다. 또 네팔 학생 돕기와 교류에 대해 예산을 확정하고 종단 사회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을 해외로 넓혀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종의회(의장: 우인 정사)는 지난 2월 17일 포항 수인사에서 제154

회 임시 중앙종의회를 개최하고 본 안건인 △수인사 공사의 건 △통리원공사의 건 △네팔어린이 한국전 시회 지원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회의에는 종령 법공 예하가 배석하였으며,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 중앙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 등 종의회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중/조/법/어

자부비모(慈父悲母) 은덕으로 일체남녀 안락이라. 자부은혜 산과 같고 비모은혜 바다 같다.

지 면 안 내

5면 이달의 법문 / 승원 정사

9면 칼럼 / 자비정원(최종회)

7면 인터뷰 / 덕화사 김기태 각자

10면 불교로 여는 삶<2>



불교총지중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중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1년 3월 1일~ 3월 31일

대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중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중

네팔 안나푸르나 어린이들 한국 초청한다

다큐멘터리로 제작 중 국제 다큐영화제서 상영예정



네팔 안나푸르나 산골마을 어린이들의 한국 방문이 종단의 전격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확한 시기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지만, 빠르면 연 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작년 종단이 교복지원으로 인연이 닿은 부메학교 학생

들 중 김규현 화백의 제자 12명의 한국 방문과 한국에서의 그림 전시회를 하기 위함이다. 김규현 화백은 어린이들에게 평소 그림을 통해 불교를 가르치고, 이의 회향으로 불교 4대 성지를 답사하며 그림 그리기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은 또 국내 굴지의 영화감독에 의해 다큐멘터

리 '안나푸르나의 김씨르(가칭)'로 제작중이다. 다큐멘터리는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실버다큐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21년 국제 다큐영화제 및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제154회 임시 중앙총의회는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학생들

의 한국 방문과 전시회를 돕기로 결의했으며, 이미 지난 달 불교 4대 성지 중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성지 순례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종단은 한국에 방문하는 교통 및 현지 숙식, 그리고 전시회 운영 및 관련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또 종단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하늘길이 열리는 대로 네팔 및 인도 성지순례 등을 준비하여, 교류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네팔에 거주 중인 김규현 화백은 "학생 12명 정도를 선발, 확정하여 그림 48장 준비 중이며, 설산 야외스케치 뿐만 아니라 한국어인사 등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종단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통리원에 감사패를 보내왔다.



“올바른 정치로 국정에 힘써달라”

윤영석 국회의원 통리원장 예방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지난 2월 3일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고 통리원장실에서 환담을 나누었다.

윤 의원은 “불교계에서 불교총지종이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같이 힘이 되

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인선 정사는 윤 의원의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불교를 위한 올바른 정치로 국정운영에 힘써달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통리원 총무부장 원당 정사가 함께했다.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네팔 학생 돕기 및 교류 예산 편성



종단 제188회 원의회 및 제128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가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원의회 의원과 유지재단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9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2017

년도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심했던 수인사와 자연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통리원에 대한 공사, 네팔 학생 돕기와 교류 관련 예산 편성의 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 154회 중앙총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음학사 제 195차 이사회 개최

2021년도 법인, 학교회계 예산안 승인

학교법인 관음학사 195차 이사회가 이사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6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2020학년도 5차 추

경안과 2021년도 법인회계 예산안, 학교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이 참석하여, 부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렴365' 캠페인을 설명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신임교사 임용



국어과 손가영



영어과 서윤아

2021년도 새 학기를 맞아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지난 2월 16일 신임 교사를 임용하였다.

신임 교사는 다음과 같다.

국어과 손가영, 영어과 서윤아 교사 이상 총 2명.

종단의 총지장학금 후원에 감사

한국불교기자협 임원단 통리원 예방



종단이 한국불교기자협회에 수여하는 총지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회장 신성민 현대불교 부장과 총무 노덕현 현대불교 차장이 지난 2월 16일 통리원을 방문해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신회장은 “불교총지종이 협회에 보내는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창종 50년을 맞이하는 총지종을 축하하며, 미력이나마 총지종 홍보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인선 정사는 “불교계 기자들이야말로 거리의 포교사나 다름없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자리에서 협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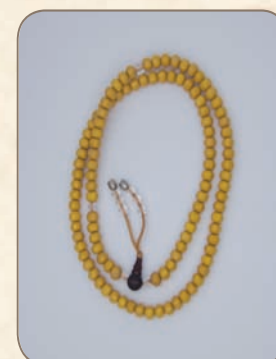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BTN불교TV 제94회 이사회 개최

2021년도 예산안 승인, 신임 이사 추천

BTN불교TV 이사회(대표이사 회장: 성우 스님)가 조직 일부 변경의 건과 2020년 결산 및 올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신임 이사를 추천했다. 지난 2월 24일 BTN불교TV 사옥에서 개최된 제94회 이사회는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회장 성우 스님, 현고 스님, 호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조직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으며, 제27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과 2021년 예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를 당연직 신임 이사로 교체 선임하며,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을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6명 중 2명만 재선임을 추천, 현 23명에서 19명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BTN불교TV는 3월 31일 오후 2시 무상사에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단협 '종교편향'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2월 18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불교 대표 종단들이 종교편향 및 훼손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또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올 10월 양산 통도사 등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이하 종단협)가 지난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올 첫 이사회 및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임원 39명 중 38명 출석, 불참 1명으로 성원됐으며, 사무총장 선출의 건을 비롯해 임원 변경의 건과 2020년 결산 및 사업결과 보고,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교편향과 훼손사건 발생 시 단계별 대응뉴얼에 따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종단협은 종교편향 및 훼손사건을 3단계로 나눠 매뉴얼을

채택하고, 단발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1단계, 훼손사건이나 공공시설 및 조직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2단계, 중대한 편향 및 훼손사건은 3단계로 분류해 각각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또 종단협은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을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했다.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수여하며 대학생 불자들을 격려했다.



사무총장 도각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에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이 선출

종단협 신임 사무총장 도각 스님

2월 18일, 이사회 최다득표 당선

됐다. 지난 2월 18일 열린 2021년 첫 이사회에서는 지민 스님(삼론종 총무원장)의 후임으로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하였으며,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법상종 총무부장 해월 스

님이 후보로 등록, 38표 가운데 21표를 얻은 도각 스님이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회장 원행 스님은 신임 사무총장 도각 스님에게 곧바로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수행의 종교로서 불교

지혜의 눈

과학과 종교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 현대인의 '치유' 사상으로 자리매김

조선 시대의 송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은 매우 혹독하였는데 마을마다 있던 사찰의 재산은 나라에 의해 몰수당하고 사찰을 서원으로 개조하면서 산중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승려를 천인의 하나로 격하시켜 양반들이 절에 놀러와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면서 승려들을 노비처럼 부렸습니다.

특히 명승지인 곳은 양반들이 승려들을 동원해 가마를 들게 하고 그 위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행위로 저질렀지요. 사실상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는 쇠퇴할 대로 쇠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멸망하면서 일부 인사들이 새로운 서구사상을 받아들였지만, 그 서구사상 또한 침략자들의 논리에 다름없었죠.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시기의 일본의 침략 논리는 서구 열강의 침략 논리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었지만, 그러한 내용에 무지했던 사람들은 서구 사상을 구세(救世)의 논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유교에 의한 종교적 차별이 사라지자 불교는 민중의 종교로 널리 전파되어 가장 큰 신도 수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교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 차별을 받습니다. 미군정기 때부터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고 초파일은 197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공휴일로 지정되었죠.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막대한 구호 물품은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나눠주었고 학교나 병원 설립 등과 같은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물론 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원

리에 이해가 깊었던 개신교였기에 교육과 의료 선교를 활발히 전개하여 가능했던 일이지요. 불교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교세가 위축되었습니다. 물론 신도가 증가했지만 그것은 아직 산업화 이전의 세대들이 전통 신앙에 충실했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를 거치면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교세에 불교가 뒤처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 불교는 사실상 사회적 영향력이나 신도 수에 있어서 소수종교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소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전 읽기의 열풍은 그러한 현상의 한 단면이고 젊은 세대는 불교를 종교로써 접근하기보다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상으로서의 성격이 짙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생명을 중시하는 성격을 지니면서 자신을 파괴하려는 상대방과의 공존이 가능한 것은 제가 보기에 불교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나이 든 세대들에게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담을 벗어나 자신만을 위해 충실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길잡이로 불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사상과 종교와의 충돌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적 논리로 이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메커니즘이 밝혀지는 것과 비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

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과학과 갈등 없이 상호 영향을 주는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학과 종교의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이해관계에 기반한 건조한 인간관계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면서 명상이라는 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불교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평균수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사실상 부부의 역할은 다하게 됩니다. 예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 시점에서 대부분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조만간 백세시대가 가능해지면서 주어진 수십 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위의 사물이 익숙해져 새로운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가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부모도 두 사람이 유익적으로 협조할 자식 부양의 의무가 다하면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종교로서 불교가 다시 조명을 받는 까닭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는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연명의료 34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법상 정사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절망과 두려움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시간을 연장하려고만 한다. 결국 두 눈을 부릅뜬 채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가족에게 안타까움만 남길 뿐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길 만큼 영혼이 매달라 있다. 삶 이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근거 있는 신념도 없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

가 한국인들이 보이는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또 다른 60대의 남자도 갑자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남은 수명이 3개월 정도라고 말해주었다. 잠시 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지옥의 공포가 몰려와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지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영적인 위기를 겪었다.

현대 생사학과 호스피스의 고전 「티베트의 지혜」의 저자 소갈 린 포체가 처음 서양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비해 서양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충격을 받았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현대 사회는 죽음이라든가 죽어가는 과정, 또는 죽음 이후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죽음의 공포 아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건전한 것으로 여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 불행한 죽음이 양상’ 마음과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일구어야

대인이라지만 죽음에 대해서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교만에 빠져 자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일 것이다.

말기 암 환자 박 씨는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 선고 이후 늘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 씨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호스피스 봉사자가 물어보았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죽음은 곧 절망을 뜻하지 않는가. 정말이지 죽고 싶지 않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인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로부터 며칠 지나서 그는 죽었다. 박 씨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 죽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례

의사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자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에게 의뢰하였다. 병실을 찾아가 보니 환자는 침대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약간 세운 채 이빨을 부딪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고 있었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 무서운 것이라도 보고 있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관계자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떨릴 떨면서 들릴 듯 말 듯 “지옥에 갈까 봐서”라고 답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자, 순간 그는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호스피스 봉사자의 손을 꼭 쥐었다. 어느새 그는 굳어 있던 온몸이 다 풀려있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고 있다. 삶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또는 근거 있는 신념도 없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니, 불행한 죽음이 양상 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죽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성냄, 폭력, 공포 같은 감정으로 마음이 크게 혼란스럽다면, 평화롭게 죽을 수 없을 또한 자명하다. 따라서 죽음을 바르게 맞이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삶과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일구어야 하는 것이다.

「티베트의 지혜」 중



심보이야기 17

법선 정사

종자와 현행과의 관계 아뢰야 연기(緣起)

불교를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용어’의 어려움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지정학적 위치에 한자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는 일반용어뿐만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도 한자의 용어가 기본이 되어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식불교에서도 많은 전문용어가 나오며 유식 공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자로 되어 있지만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한자의 익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과 종자, 상호 인과관계

현행(現行)은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합하여 현행(現行)이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행이란 말은 나타나서 움직였다, 나타나서 움직였다는 말은 정보가 현재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종자로서의 잠재적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싹을 틔워, 현재의 활동으로 변화한 것이 현재의 여러 가지 경험이다.

종자는 잠재상태, 현행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상호 인과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종자에서 현행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자가 원인이고 현행이 결과가 된다.

또 생겨난 현행은 곧바로 새로운 종자를 아뢰야식에 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행이 원인이고 종자가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심층심리와 표층심리와의 유기적인 상호 인과관계에 의해 전 존재가 마치 폭류와 같이 계속해서 유동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아뢰야식 연기라 한다.

7식 활동, 아뢰야식에 혼습

종자에서 현행이 생기는 과정을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이라 하고 현행이 종자를 심는 과정을 현행熏종자(現行熏種子)라 한다. 또 아뢰야식 속에서 종자가 다음다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내면서 생장(生長)하는 과정을 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라 한다.

이와 같이 종자와 현행은 종자생현행, 현행熏종자, 종자생종자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세계를 형성한다. 유식의 8식 중에서 아뢰야식이 종자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나머지 7식은 현행의 기능으로 작용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종자를 고정관념, 현행을 사고 활동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정관념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종자생현행이고, 어떤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잠복되는 것은 현행熏종자이며, 고정관념이 또 다른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종자생종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7식의 활동은 아뢰야식에 혼습되어 종자 즉 습기를 형성한다. 아뢰야식은 그 종자를 보관하고 종자는 온갖 조건에 따라 현행 즉 7식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의식과는 별개로 외부에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방식 즉 종자생현행, 현행熏종자, 종자생종자라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현재 행위는 종자의 결과

종자와 아뢰야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뢰야식과 말나식과 의식과

전5식 등의 심식작용은 일정한 업력을 지니는 종자가 되어 아뢰야식 속에 저장된다. 저장된 종자는 모든 심식행위의 원인이 되고, 현행(現行)하는 현재의 행위는 종자의 결과가 된다.

그러나 현행의 결과는 나타나는 순간 동시에 또 다른 원인으로써 업력 종자로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올 원인의 종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종자와 심식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서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불일불이(不一不異)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동시에, 말을 하는 것은 정보가 튀어나와서(현행) 하는 것이지만 그 말하는 것을 귀로 들으니까 동시에 저장이 된다. 현행과 동시에 종자(씨앗)로 동시에 저장이 된다. 나타나는 것(현행)과 씨앗 심는 것(熏종자)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종자,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

이 중에서 특히 아뢰야식과 종자와의 관계는 아뢰야식은 종자가 저장되는 본체가 되고, 종자는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가 됨으로써 종자가 원인이 되어서 아뢰야식의 심식작용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종자는 아뢰야식 안에 있으면서 아뢰야식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의 역할을 하고, 아뢰야식의 활동은 종자의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종자와 아뢰야식 그리고 종자와 모든 심식의 현행 등의 관계는 같다고 할 수 없고, 별개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불명각 기로전수 열반

총기 41년(2012년) 3월 19일

열반 : 총기 41년 3월 19일(월)
발인 : 총기 41년 3월 21일(수)
장례식장 : 경주 중앙병원 장례식장

밀교연구소 설법자료집(제1집) 배포

총기 42년(2013년) 3월 26일

내용 : 밀교연구소 설법자료집(제1집)
각 사원에 배포
대상 : 각 사원 주교

국회 정각회 새 법당 개원 및 신년법회 참석

총기 44년(2015년) 3월 12일

내용 : 법회 및 아침공양
장소 : 국회 정각선원
(국회의사당 지하 1층 105호)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제15주년 기념법회

총기 44년(2015년) 3월 13일

장소 : 국방부 육국회관 태극홀
참석자 : 통리원장 법등 정사



재물, 몸, 목숨을 견고하게 만드는 법

불교총전 82쪽 본사경(本事經) 중 <세가지 견고하지 못한 법을 세가지 견고한 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법문

우리의 삶에서 재물과 건강, 목숨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재물과 건강, 목숨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고하지 못한 재물을 견고한 재물로 바꿀 것인가?

이른바 청정한 재물을 가진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법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힘을 다하고 땀을 흘려 노력으로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로 자신을 위하고, 위로 부모를 받들고, 처자와 친구 권속들에게 보태어 주며, 모이면 즐겁게 하고, 사문(沙門)을 만나거든 청정한 계행을 갖추어서 착한 법을 성취하며, 범행(梵行)을 부지런히 닦아서 교만을 버리고, 인욕유화(忍辱柔和)하여 정직한 길을 걸으며 사도(邪道)를 버리고, 열반성(涅槃城)을 향하여 맑고 미더운 마음으로 환희 공경하고, 때에 따라 보시하여 멀리 무상(無上) 안락의 열반을 구하거나 혹은 다음 세상에 인천(人天)의 즐거운 과보를 원하는 것이니, 이러한 행위는 견고하지 못한 재물을 견고한 재물로 바꾼다는 것이다.

어떻게 견고하지 못한 재물을 견고하게 할 것인가?

우선 재물을 모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땀흘려 얻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야 견고한 재물이 됩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재물은 언제든지 나

라에 몰수되거나 남에게 빼앗기거나 쾌락으로 소진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청정한 재산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유익하게 써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소득을 네부분으로 나누어 절반은 생활을 위해서, 1/4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1/4은 보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견고한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 수행자를 만나 청정한 계행을 갖추고 착한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으면 재물 또한 지키기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복권에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사기를 당하거나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다가 재산을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견고하지 못한 몸을 견고한 몸으로 바꾸는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정견(正見)을 성취하여 능히 살생·도둑질·사음·거짓말·음주·방일(放逸)을 여의고 구경 원만하여 범행(梵行)이 청정함이니, 이러한 행위는 견고하지 못한 몸을 견고한 몸으로 바꾸는 것이라 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절제한 생활을 자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지나친 감각적 쾌락으로 피로해서는 안됩니다. 건강이 몸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몸을 가꾸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도덕한 행위로 남에게 비난받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삼

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견고하지 못한 목숨을 견고한 목숨으로 바꾸는 것이라 하는가?

이르되, 나의 법 가운데 모든 성제자(聖弟子)가 여실(如實)하게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제(四諦)를 아는 것이니, 이러한 일은 견고하지 못한 목숨을 견고한 목숨으로 바꾸는 것이라 한다.

우리의 수명은 유한하며 불교에서는 업(業)이 다음 생을 결정하며 다음 생에 가져갈 것은 지혜(반야)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속에서 말하는 사물에 대한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에 대해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통찰지’, ‘반야’라고 하며 이는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아는 지혜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나’와 이 ‘세상’이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찰지가 나야 합니다. 통찰지(반야)를 깨달을 때 마음은 열반을 향한다고 합니다. 나와 이 세상이 실체는 눈 코 귀 혀 몸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온(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나와 세상에 대한 집착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불교총전(208쪽)에 공덕천과 흑암천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오온에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즐거움(공덕천)과 괴로움(흑암천)을 낳기 때문에 열반이 성취를 위해서는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



벽룡사 주교 승원 정사

라고 합니다. 이를 반야심경에서는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오온이 공함을 비취보아 일체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상근기 보살들은 보리심의 대용가약만으로 탐진치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감각적 쾌락에 빠져있는 범부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서 쾌락과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에 내가 욕심이 많다고 바르게 알고 욕심을 줄이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자꾸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 보십시오. 나, 나의 재산, 나의 자식 등 수많은 대상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업을 지어야 복도 쌓이는 법입니다. 좋은 일에 보시하거나 남을 돕는 것도 좋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이 병들어든 나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행하고 바른 지혜를 기르는 일이 최고입니다. 다음 생에 가져가는 것은 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른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이 일상화된 코로나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기로원에 진원하며...

동고동락, 동행동수의 일불제자로 오늘이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안성 정사

긴 세월 동안 승직 생활을 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남긴 것도 없고, 부지런하게 살아왔지만 딱히 해놓은 것도 없이 퇴직을 하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온 수많은 날들의 하루하루가 나빴거나 우울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공하고 교화하느라 그럴 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회한이 남기는 합니다. 좀 더 잘 할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퇴직을 했다고 해서 종단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는 퇴직이 마치 퇴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후배 스승님들께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지면 생각마저 퇴보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원에서 아직 교화를 하고 있는 몸이기에, 퇴직이라 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기로승이 되었지만, 사원을 떠나지 않은 이상 기로가 아니며, 현직 교화승으로서 성도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사원을 완전히 떠났을 때가 진정한 기로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교화에 임하고자 합니다.

돌아켜보면 그동안의 교화 생활은 기쁘고 좋은 날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원 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보살님들 보살피고 돌보는 가운데 힘이 생기고, 바쁜 가운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종단 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임하여 나갈 때 빛을 더욱 발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종단은 모두가 관심과 성원으로 헤쳐나간다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선 선대스승님들과 동료, 후배 스승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불제자이자 종조님의 밑에서 함께 동고동락과 동행동수하여 왔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중중제망의 인연 속에 함께 지내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이었고 값진 보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못다 한 일은 사원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합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은 열두 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고, 승전의 깃발을 올렸습니 다. 저는 몇 푼어치 안 되는 열정일지언정, 그래도 힘은 남아있다고 믿습니 다. 힘이 다할 때까지, 사원을 떠나는 그 날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임원 변경**
총기 45년(2016년) 3월 1일

내용 : 구창희 이사에서 강재훈 이사로 변경

**총기 47년도
제1차 스승 심화교육**
총기 47년(2018년)
3월 20일 ~ 22일

주관 :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교육원장:화령)
내용 : 밀교교리, 종조법설집 과정으로 진행
장소 : 통리원
대상 :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전라 교구
60세 이하 교화스승

**제2기 감수위원
위촉장 수여**

총기 48년(2019년) 3월 12일

대상 : 묘원화, 서령, 지현, 보현, 덕현,
남해, 자성 7명

**제 19대 통리원장
기자간담회**

총기 48년(2019년) 3월 20일

장소 : 통리원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0>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봅시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세상 물질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 앞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에게 촛불에 손을 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촛불에 손을 대었습니다. 뜨거워서 올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촛불에 손을 대면 ‘아프다’라는 확실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그 아이에게 다음에 다시 촛불에 손을 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면 아프다 라는 이해가 손을 대고 싶다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번뇌를 받아드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지혜가 스스로 자신의 작용을 하면서 번뇌를 줄일 것입니다. 수행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온(五蘊)

붓다는 우리 존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십니다. 5가지 무더기,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 등으로 설명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붓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를 무더기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붓다께서 우리 존재를 이렇게 5가지로 해체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나라고 하는 관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붓다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를 설명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붓다는 불변하는 진리를 세상에 펴고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붓다는 우리 존재의 문제, 고통을 직시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붓다가 하고자 하신 말씀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을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존재와 세상을 해석하면서 고통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대상과 반응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붓다는 어떻게 알아지는가, 어떻게 아는가의 기준으로 세상을 설명하셨습니다. 붓다가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 향, 미, 촉, 법으로 세상을 설명하신 것이 이런 이유였습니다.

과학에서 다루는 물질과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의 차이를 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과학에서는 물질 자체로 물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컵이 있다고 해 봅시다. 과학에서는 이 컵의 질량, 밀도, 부피, 무게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불교는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컵을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색), 부딪혀서 소리를 낸다면 들리는 것(성), 어떤 냄새가 난다면 냄새나는 것(향), 혀를 대어서 맛이 난다면 맛 나는 것(미), 닿으면 느껴지는 것(촉), 생각해서 마음에 형상이 나타나면 알아지는 것(법)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을 각각의 감각기관에 어떻게 알아 지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붓다의 목적이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인식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물질을 설명하는 것이 고통을 이해하는데 도움

번뇌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부처님은 기본적인 물질로 흙, 불, 물, 바람의 요소로 설명

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온은 물질(색), 느낌(수), 인식작용(상), 다양한 의지작용(행), 아는 작용(식)입니다.

물질(색)

붓다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흙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 불의 요소는 뜨겁고 차갑게 느끼게 하는 성질, 물의 요소는 응집성을 느끼게 하는 성질,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성질입니다.

붓다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경우에는 빨강게 보이는 성질, 파랑게 보이는 성질, 노랑게 보이는 성질 등을 구분하기 않고 단지 보이는 성질(색)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몸에서 느끼는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물질을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단지 느껴지는 성질 한 가지로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붓다께서 존재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신 것은 나라는 개체성의 해체였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몸은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나라는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부드럽다고 느끼게 하는 물질을 흙의 요소로 구분하고, 따뜻하고 차갑게 느끼게 하는 물질을 불의 요소로 구분하고, 응집성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물의 요소로 구분하고,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바람의 요소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기본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이 4가지 물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이해와 같은 시각에서 불교의 물질을 이해하는 오류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물질도 미세하게 쪼개어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지만 실재하는 물질은 실재하는 마음과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질을 이해했을 때 불의 요소를 이해한 것입니다.

실재하는 법은 모두 윤통하고 반응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4가지 물질 이외에도 눈에 보이는 것(색), 귀에 들리는 것(성), 냄새나는 것(향), 맛 나는 것(미), 몸으로 느껴지는 것(흙, 불, 바람의 요소) 등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우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더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수)

몸에 무언가가 부딪치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몸에서만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조건 되면 고유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을 아는 것으로 불의 요소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느끼게 하고 차갑게 느끼게 하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불의 요소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재하는 물질도 이해되는 지혜의 대상입니다. 뜨겁게 느끼게 하는 성질과 차갑게 느끼게 하는 성질은 하나의 성질입니다. 하나의 성질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법이고 불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물과 미지근한 물과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차가운 물에 비해 뜨겁고 뜨거운 물에 비해 차갑습니다. 한 번은 미지근한 물을 차갑다라고 표현했고, 한 번은 뜨겁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차갑다라고 표현하게 했던 성질과 뜨겁다라고 표현하게 했던 성질이 두 가지 성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성질입니다. 하나의 성질을 접해서 내 마음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차갑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뜨겁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은 관념적 해석입니다. 실재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성질입니다. 이 성질은 어디에 있는 것도

것이 부딪쳐도 느낌이 일어나고 귀에 들리는 것이 부딪쳐도 느낌이 일어납니다. 코와 냄새나는 것, 혀와 맛나는 것이 부딪쳐도 느낌이 일어납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쳐도 느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의 마음과 화를 아는 마음은 다릅니다. 화의 마음과 화를 아는 마음이 부딪치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으로 인해서 화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딪칠 때 어떤 것은 파랑게 알고 어떤 것은 빨강게 알게 되는 것은 부딪침으로 인해 일어나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 이어>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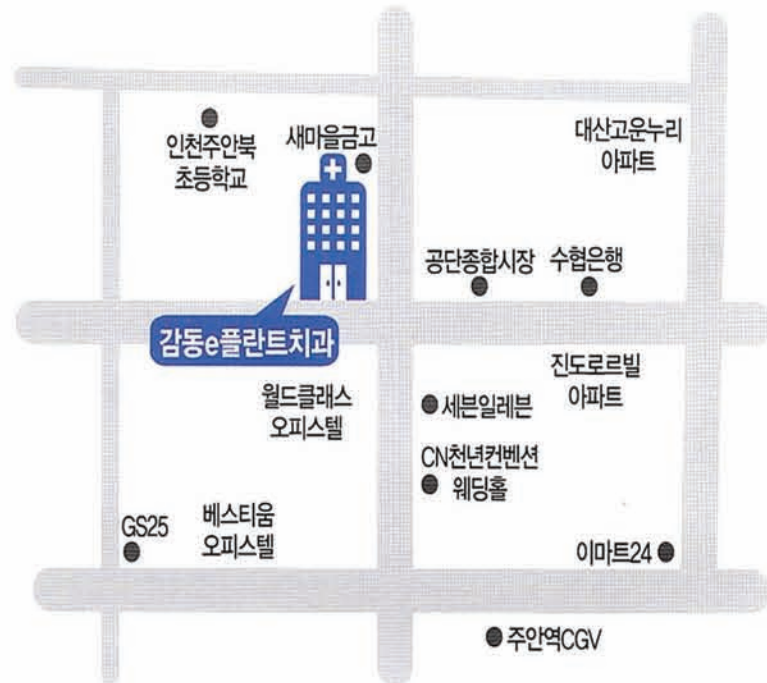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덕화사 승강기 회사

김기태 각자 특별 인터뷰

평생 기부의 삶, 부처님 전 중생회향(衆生廻向)

온 가족 덕화사 교도로 40년, 부처님오신날까지 설치 목표로



사진은 덕화사 김기태 각자와 윤숙희 보살

어느 한 교도의 큰마음으로 덕화사(주교: 법상인 전수)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세운다는 소식에 지난 2월 16일 서둘러 부산을 향했다. 기자로서 사원 내 ‘승강기 설치’라는 사실 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하

행과 사회 기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각자님은 누군가 어렵고 힘들다면 꼭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예요. 80년도 초반 결혼하고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이 덕천 1동 달동네 방 한 칸에 살 때예요. 우리는 저축하나

있었기 때문에 김 각자의 이웃 사랑이 실현은 계속 될 수 있었다.

“다만 얼마라고 드린다고 약속된 분들은 그 때가 되면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가 여쭙

각자의 마음에는 늘 자리하고 있었다.

“IMF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요즘 다들 어렵다는데 사업에 보태어 쓰라고 어느 날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평소 생활비로 드린 것을 오랫동안 한푼 두푼 아껴 모아 두셨다가 평생 처음 제게 내어주신 그야말로 귀한 돈이었죠. 생각해 보니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아버지께 쌀을 사서 구청에 가져다주면 어떨까요 여쭙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셔서 함께 기증을 했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쌀 기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쌀로 지원한게 현금으로 따지면 5억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우리(?)만 몰랐던 김 각자의 ‘쌀 선행’은 지난 2010년도 제26회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대상에서 봉사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쌀’과 생필품지원을 비롯해 독거노인, 홀로노인, 경로위안잔치 경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2005년 쓰나미 피해국에 의류 3천여 점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2009년에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베트남 여성의 입원 치료와 성금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 인류애 실천으로 국가적 위상을 높였다. 이를 포함해 비행청소년 교화 및 장

는 1995년부터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과 도시락을 지원하고, 빈곤아동에게 책가방과 교복 등을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또 이렇게 시작된 청소년 돕기는 2004년도 한국청소년보호연맹 부총재로 들어가서 총재로 활동하다가 서울까지 다니는 상황이 어려워져 작년부터는 명예 부총재로서 건강한 청소년사회를 육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작년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도 있었고요. 검진도 성실히 받아오고 건강하다고 자부해왔는데. 다행히 우연치 않게 일찍이 발견하게 되어서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길 바라고, 덕화사 교도들이 편안하게 불공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종단으로 교화되면 좋겠습니다. 승강기는 현재 설치 허가 완료 상태고, 올해 5월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어떻게든 끝내서 사원과 교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종조께서는 “부유할수록 더욱 근면하고 보시해야 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謙遜)해야 할 것이며, 실천하자면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며 선을 행해도 고자세는 아니 되며, 실(實)다워도 허(虛)함 같이 해야 하며,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해야 하며,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이 해야 하느니라.”고 설하셨다.

김 각자 부부의 이타행과 자비행이 종조 말씀과 겹쳐져 아직까지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부디 건강하시어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서원한다.

부산= 인터뷰 박재원 기자
사진 전서호 기자

1998년 IMF, 2천만 원 쌀 구매로 어려운 이웃 찾아 나눔 실천 제 26회 자랑스러운 부산시민 수상, 불우청소년 돕기에도 앞장

사했다는 교도에 대해 매우 궁금했다. 어떤 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예정된 시간에 김기태 각자(67세, 웰빙하우스 대표)와 그의 아내인 윤숙희 보살(현 덕화사 신정회 회장)을 덕화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 중>

인터뷰 내내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의 시 구절이 떠올랐다. 개인적으로는 필자에게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다가왔고, 김 각자 부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덕화사와 인연을 맺고 다닌 지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누님 세분 중 한분이 몇 해 전 작고한 성화사 김정순 교도인데, 그 인연으로 형제들이 다 다니게 되었고, 아이들도 자라는 동안 함께 신행생활을 해왔지요.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절에 다녀오면 연로하신 분들이 3층 올라 다니시기가 어렵다 말을 해왔는데, 그 때마다 언젠간 내가 꼭 해야겠다 생각해 오던 것을 이제 하게 되었네요.”

김 각자 말마따나 여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회사라는 것이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임은 누구나 안다. 그 마음도 하루 아침에 결심을 한다하여 낼 수 없다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 역시 이번 회사는 가난했던 지난날부터 일찍이 시작된 이웃돕기 자비

못하면서 달마다 동사무소에 얼마 가져다 드려라, 직접 가져다 드려라 했어요. 네 사람한테 5만원 씩 그 돈 액수가 20만 원이나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여태까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고, 93년도 가게를 시작하고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현재 수십 개 구좌로 매달 17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삶은 초반부터 평탄하지는 않았다. 장남에 5대 독자라는 이유로 군대 제대 후 바로 결혼을 해야 하는 가정환경 때문에 이들의 삶은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늘 신행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법을 꾸준히 실천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남편 말을 듣고 불평불만 없이 함께 살아 온 아내가

다 한번 쓸 수 있는 밥값일지언정 그분들의 살림살이에는 지나칠 수 없는 큰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빠트리면 안 된다고 늘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다행히 의견 충돌 한번 없이 여태 잘해주고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각자는 지난 1993년 의류직매장을 차려 생활이 피기까지 10여 년 동안 공장노동자, 화물차운전기사, 의류행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어려서도 고생은 더 심했다.

일찍이 사업에 고배를 마신 아버지를 따라 여덟아홉 살 때부터 묘지 관리를 조건으로 받은 땅을 일구며 살았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부산으로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졸업을 채 하지 못했다.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남의 사정에도 모른 채 할 수 없는 이타심이 김



덕화사 주교 법상인 전수와 함께 사원 앞에서



덕화사 뒷편 승강기가 설치 될 장소에서 부부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란 무엇인가?_밀교의 특징<3>

사상적 종합성

밀교는 고대 인도의 종교문화, 민속문화를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그 속에 중층적으로 쌓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불교적 색채보다 외교적(外敎的)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 밀교란 불교의 옷을 입은 힌두교라고 평한 학자들이 있을 정도이다. 그것은 일면에 있어서 수긍할 만하다. 확실히 밀교 경전 속에는 인도 고래의 주술도, 종교의례도, 신비사상도, 힌두 신도, 민간신앙도, 자연과학도 모두 있다. 그러나 밀교가 이들 인도의 기존 문화를 무차별 섭취한 것은 아니다. 주의를 기울여 보면 밀교는 이들 외교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점차 불교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가령 브라만교에 기원을

둔 호마법(護摩法)을 섭취하면서, 공물의 천상 운반에 의한 신들의 위무(慰撫)에 그치지 않고, 연소하는 불을 자기 번뇌의 파괴로 이끄는 내호마(內護摩)로 승화하고 있다. 현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브라만교 혹은 힌두의 주법(呪法)을 채택하면서, 이를 궁극적으로 성불의 법(法)으로 별질(變質)시켜 간다. 또 힌두 신들을 대폭 밀교의 판테온에 편입시키고 만다라를 구성하여 각각 불교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요컨대 밀교는 인도인의 비근(卑近)한 종교행사라든가 토속신앙, 일상생활의 습관 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 내용을 서서히 불교사상으로 바뀌 나가려고 했다.

『대일경』 『금강정경』과 같은 인도 중기의 밀교 경전, 나아가 『비

밀 집회 탄트라』나 『헤바즈라 Hevajra탄트라』와 같은 후기의 밀교 경전 중에는 중관, 유식, 여래장과 같은 대승불경의 대표적인 사상이 수법의궤(修法儀軌) 속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밀교는 이들 힌두 사회의 습관, 의례, 주법 등을 대담하게 섭취하면서 점차 그것을 불교 교리적으로 순화하고 내면화하며 사상화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체의 인도 문화와 사상이 밀교 속에 종합적으로 흡수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상징성

궁극의 진리를 깨달은 그 경계를 직접 문자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교경전이나 논서에 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경

우는 불(不)·비(非) 등의 부정사를 거듭하고, 또 언어도단으로 그 표현을 포기한다. 밀교에서도 그것을 자내증, 성지(聖智)의 경계, 삼마지의 법으로 삼고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다. 그것은 유가법을 통해 각자의 종교체험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주심론」을 간략화한 「비장보약(秘藏寶鑰)」에서도 제9주심까지 불교 각 종의 경론을 인용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지만, 제십비밀장엄심은 단지 「보리심론」의 삼마지를 설파하는 대목을 그대로 인용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밀교는 또한 최고의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방식이 그것이다. 진리는 언어 표현을 초월해도 그림이나 법구를 이용

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상계의 일체 사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 표면적인 대로 한쪽의 견해에 기초한 이해를 말하는 천략석(淺略釋)과 사물의 본질을 내다보는 심비석(深秘釋)이다. 진리를 불신(佛身)으로 하는 법신이 모든 곳에서 영원히 설법을 하고 있다는 밀교의 독자적인 법신설법 사상은 종교체험을 얻은 각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비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삼밀융합으로 즉신성불

밀교에서는 진리를 상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만다라로 전개한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융이 상징(Symbol)을 Sinnbild진빌트[sinn(의미·의식, 합리적)+bild(그림, 상(像)-무의식, 비합리적)]로 분석하고, 심적 사상(事象)의 고유한 에너르기 변환기(變換器)라고 하며, 동양의 만다라를 ‘상징 중의 상징’이라고 한 것은 주

목할 만하다. 만다라는 일반적으로 묘사된 그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밀교에서는 만다라를 형태상으로 네 가지로 나눈다. 대(大), 삼매야(三昧耶), 법(法), 갈마(羯磨)의 네 종류이다. 대만다라는 그림에 그려지거나 토단에 세워진 만다라라든가, 불상 등 현실적 모습을 취한 것을 말한다. 삼매야만다라는 금강저, 윤보(輪寶), 방울[鈴] 등의 법구를 말한다. 이 법구들은 진리를 삼매야형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법만다라는 법자를 음절 내지 여러 글자로 구분해 절대진리의 일부를 드러내도록 한 종자(種子)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갈마만다라는 현실 세계의 모든 활동적인 면을 만다라로 파악한 것이다. 이들 4종의 만다라는 형태가 다르지만 본원적으로는 각기 불리(不離)로 결합되어 있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현실세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 속에 잠재된 상징을 통해 절대세계의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호에 이어>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중앙아시아 밀교전법의 가교
바이로짜나바즈라

인도사상사에서 불교는 석존시대부터 나란다대승원(마하비하라)이 존속한 14세기 전후까지 약 2천여 년의 시간에 이른다. 밀교가 차지하는 시간은 진언경, 다라니경이 출현한 4세기 전후를 출발점으로 본다면 밀교는 인도불교사에서 무려 천여 년 간 존속한 성공적인 이론과 수법 체계를 보인 것이라 평가된다. 인도 후기밀교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구 불교계에 의해서이다. 후기밀교의 많은 부분들이 「금강정경」에 의해 대부분의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강정경」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금강정경」을 연구하려면 인도의 붓다구하야, 샤까미뜨라, 아난다가르바와에 의한 방대한 세 주석의 번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번역을 위해서는 인연 있는 인물이 나서서 밀교를 전공하여 산스크리트, 티벳어, 한문, 일어, 영어, 심지어 우리말에 대한 문법학 연구 등에 평생을 바쳐야 한다.

밀교 인물사에 소개하는 많은 인물들이 왕족 출신인 사실은 이들이 교학연구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학기간을 보내고 역경, 전법의 불사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바이로짜나바즈라(Vairocanavajra, 12세기)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로짜나바즈라는 인도 중동부 오리사 지역에 해당하는 남코샬라의 소마나쓰뿌리에서 사차나(라자세나라고도 한다) 왕가에 태어났다. 수학기를 마친 후 서인도와 북인도를 여행하다가 나란다승원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서기관 출신의 스라빨라라고 하는 서기관 카스트의 요기를 만나 8년간 배웠다. 스라빨라가 제자들의 마정수기(摩頂授記)를 내릴 때는 그가 제자의 이마에서 손을 떼기 전까지 제자들은 깊은 무의식 상태를 오래도록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바이로짜나바즈라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후 유명해져 훗날 티베트와

중국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된다. 또한 도하 문학에 뛰어나 방대하고 난해한 불법을 간결한 시가(詩歌)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많은 밀교의 비법에 능통하였고, 심지어 원에조경에도 조예가 깊었다. 인도본토를 유람하며 밀교를 전할 때 외도를 숭배하는 왕을 만나 불에 던져졌으나 몸을 상하지 않는 이적을 보였다.

바이로짜나바즈라는 티베트와 깊은 관계를 맺고 바리출신 역경사 린첸락(1040~1112년)과 인도불전의 티벳어 역경에 참여했으며 티베트를 다섯 차례 방문하여 향후 티베트불교와 정치를 이끌 인물들을 무수히 길러냈다. 티베트에서는 바이로짜나바즈라 대신에 가끔 바이로짜나락시파로 더 알려졌지만 바이로짜나락시파는 8세기 활동한 티베트의 역경사와 혼동한 것이다.

바이로짜나바즈라는 티베트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지만 특히 라사 북

쪽의 펜올에서 끼룽사원을 세우고 역경과 지도에 전념했다. 그의 제자가 운데 한 사람인 상유닥빠(1123~1193년)는 스승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행실이 검소하고 먹을 것을 가리지 않았으며 제자가 되려는 이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스스럼없이 막지 않았고, 부드러운 말로 가르치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바이로짜나바즈라는 티베트불교의 까규 전통 가운데 모계의 전승자이기도 하며 사하자야나의 전승조사로 여겨지며, 현재 그의 주석이 티베트불교 논소부에 전해지고 있다. 바이로짜나바즈라는 티벳어에 능통하여 역경할 때 번역자를 따로 두지 않았지만 작업에 동참한 자로 랜달마로되로 알려진 역경사가 있었다.

바이로짜나바즈라는 송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중국도 방문하여 오대산을 참배한 기록도 전해진다.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지역의 통치자

가 의심하여 창과 화살로 공격하였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황제는 알 수 없지만 왕족과 귀족이 모인 정원 앞에서 수는 한 컵을 들이키는 이적을 보였는데, 당시 남인도의 술사들은 장수와 양생에 관심이 많은 왕실 귀족들에게 큰 대우를 받았고, 이들의 지식 상당 부분이 중국도교의 양생술에 전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래 수은은 맹독성 중금속이기 때문에 한 컵을 마시면 죽음에 이르지만 바이로짜나바즈라는 이를 중화하는 비책을 알고 있어 장수를 행신하는 왕족이나 귀족들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비술을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 몸을 바꾸어 보이는 신변이나 은신술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바이로짜나바즈라의 이적은 한편으로는 독이 되어 중국 황실에서 그를 아껴 거주의 자유를 빼앗아 한때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대표 최병철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핸드폰 010-2877-6137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장 종조전 참배

어려운 이웃 위해 써달라고 재단에 성금 회사



종조 새 진영 봉안을 봉축하기 위해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 인선 정사) 산하 기관장들이 지난 2월 3일 종조전을 참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고 재단에 회사했다. 왼쪽부터 재무부장 덕광 정사, 초록어린이집 이지희 원장, 미미워 세곡 키움센터 김민주 센터장,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 총무부장 원당 정사, 힐스어린이집 광방은 원장,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교정부장 승원 정사, 사회복지재단 김태원 과장

치매예방 ‘두뇌건강 홈스쿨링’ 시작

재단산하 석관실버복지센터 3월부터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 나석원)가 3월부터 어르신들의 인지력 향상을 위한 인지학습프로그램에 나섰다.

‘두뇌건강 학습지’를 제작하여 어르신이

자택에서 스스로 학습하며 인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주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 예방을 위해 개발한 자료

에서 발췌한 지남력, 시각, 지각, 언어, 기억력, 계산능력 등을 분야별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하루 일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 작성하는 일기, 숨은그림찾기, 낱말 퍼즐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50부씩 발간되며, 매주 월요일 10시~12시에 센터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코로나 걱정 말고 독서 하세요”

양지복지회관 대용량 자외선 책 소독기 설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양지 제1복지회관 하늘달팽이도서관이 대용량 자외선 책 소독기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위생을 위한 대 주민 서비스에 나섰다.

책 소독기는 대출·반납·열람되는 모든 도서들을 살균 처리할 수 있어 도서들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도서관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발열 체크를 통해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테이블 배치, 가립판 설치, 도서관 곳곳에 손 소독제 구비 등 도서관 이용자가 안심하

고 독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최연희 사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도서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대신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책 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이용자가 코로나 걱정 없이 독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늘달팽이도서관은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 35번길 4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남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작은 공공도서관이다. 현재 약 12,94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월 21일 ~ 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법등	2/17	50,000	만보사	김강미자	1/27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1/25	10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2/10	50,000			
건화사	법상	2/20	20,000			최옥순	2/10		10,000		김윤수		1/27	10,000				
관성사	황성녀	2/1	10,000	미미워 세곡키움 센터	강명순	2/15	10,000	수인사	정순득	1/27	10,000	정각사	안한수	1/24	10,000			
	인선	2/20	20,000			권민경	1/25		10,000		강명순		1/27	10,000		노점호	1/27	15,000
관음사	김정희	1/28	10,000		선헌중	1/29	10,000	실보사	박현정	2/2	10,000	지인사	탁상달	1/28	10,000			
기로스승	해정	1/28	10,000			문주하	1/29		10,000		박성호		2/9	10,000		송효제	1/22	10,000
	공덕성	2/20	20,000	밀인사	김민주	2/1	50,000		이순옥	2/9	10,000	초록 어린이집	이지희	1/25	50,000			
	상지화	2/20	10,000			록경	1/24	10,000		무명씨	2/17		20,000		강혜란	1/25	10,000	
	수증원	2/20	10,000			법수연	1/24	10,000	실지사	정혜정	1/29	10,000	총지사	최해선	2/1	10,000		
	밀공정	2/20	10,000			최주락	1/24	10,000			연화법	1/29		10,000		김정환	2/2	10,000
	총지화	2/20	10,000			정정희	1/29	5,000			유승우	2/8		10,000		김성민	2/3	50,000
	법수원	2/20	10,000			김광혁	2/17	10,000			이도현	2/8		10,000		최영아	2/15	10,000
	선도원	2/20	10,000			김재영	2/17	10,000			이서현	2/8		10,000		홍수민	2/16	10,000
	법지원	2/20	10,000			최주락	2/17	10,000			덕광	2/20		10,000		신성희	2/17	10,000
	일성혜	2/20	10,000		백월사	신운산	2/8	10,000		보현	2/20	10,000			신명준	2/17	10,000	
	사홍화	2/20	10,000			법천사	반야심	2/1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2/1		50,000		신현태	2/17	10,000
	안주화	2/20	10,000	백룡사	승원	2/20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1/27	50,000		통리원	원당	2/17	10,000	
	진일심	2/20	10,000			묘원화	2/20			10,000						묘심혜	2/17	10,000
	시각화	2/20	10,000	벚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2/1	50,000	운천사	반야화	2/8	50,000	화음사	김평석		2/17	10,000		
	최상관	2/20	10,000			하명순	1/25		10,000		이성미		2/9	50,000		우인	1/22	10,000
	연등원	2/20	10,000	사원명무 기명	남영애	2/1	30,000	일원 어린이집	구미자	2/1	10,000			보명심	1/22	10,000		
	전명환	2/6	10,000			이진승	2/1		10,000		최자영		2/8	10,000		무명씨	2/2	10,000
	전재활	2/6	10,000			박필남	2/10		10,000		이현직	2/10	10,000		무명씨	2/7	10,000	
단향사	백귀임	2/17	10,000			김갑선	2/17	10,000	자석사	도우	2/8	10,000	힐스 어린이집	강승민	2/10	5,000		
	김진화	2/14	10,000			김효진	2/17	10,000			지현	2/8		10,000		최영미	2/10	50,000
동해사	법선	2/20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여진	1/25	10,000						곽방은	2/10	50,000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2>

현대 사회 명상의 유행과 불교의 정견(正見)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대형 비즈니스로 성장

21세기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명상 붐(boom)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구글(google), 페이스북 facebook), 포드(ford)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임직원의 스트레스 감소와 생산력 향상을 위해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을 하고, 또 미국 유명 종합병원에서도 암과 같은 중병 환자들에게도 치유를 돕기 위해 명상을 하며, 나아가서 학교와 스포츠 계, 그리고 군 대까지도 마음챙김 명상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엘리트사회에는 명상이 주류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명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산업화되어 엄청난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명상앱 헤드스페이스(headspace)는 세계 190여 나라에 3,600만 명의 회원이 있고,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지닌 사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명상은 동양인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근래에는 미국 등 서양에서 명상의 과학적 효과를 내세우며 오히려 한국에도 그런 명상이 역수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명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문화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유행하는 명상은 대체로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유래한 불교 명상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양에 명상 붐은 불교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로널드 퍼서 교수가 자신을 불자라 하면서, 「마음챙김의 배신」 (필로소픽)이란 저서를 통해 미국의 ‘마음챙김’ 명상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비판

퍼서 교수는 미국의 마음챙김 명상 지도자들이 불교에서 명상법을 배우고 이것을 과학과 결합하여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답니다. 실제 마음챙김이란 불교의 팔정도 중 정념(正念)을 말합니다. 팔정도 중에서 정념의 마음챙김을 명상 프로그램화하여 경쟁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심신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퍼서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가들이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내면의 평안만 강조하지 대량 실업이나 가난, 기후 변동과 같은 사회적인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마음챙김 명상의 스트레스 감소의 효능 같은 것은 불교의 일반적인 기도, 주력, 참선을 하면 나오오는 것인데,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이 군대에도 보급되면서 적을

살상해야 하는 군인들의 심신 안정에 이용되는 것도 비판합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고 자비행을 해야 하는데, 살생의 용기를 내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명상이 이용되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인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양의 명상 붐은 좋은 일이고 장려할 일 이죠. 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은 불교에서 가져갔지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 명상은 중도, 팔정도에 기반해야 합니다. 즉, 나와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인 정견을 갖추고 명상해야 합니다.

명상은 중도, 팔정도에 기반해야

팔정도의 정견을 배제하고 마음챙김만 한다면 비록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해결로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견 없는 마음챙김 명상이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남과 경쟁하고 상대를 해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상, 기도, 참선을 하더라도 불교의 팔정도에 기반한 수행을 하면서 이타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와 자비 정신입니다. 서양의 마음챙김 명상붐을 정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내마음의 등불

실보사 서령 정사 편

악을 고쳐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열 가지 업으로 선을 이루기도 하고 악을 이루기도 한다. 그 열 가지는 몸의 세 가지, 말의 네 가지, 생각의 세 가지이다. 몸의 세 가지는 산 목숨을 죽이는 것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다. 말의 네 가지는 이간질과 악담과 거짓말과 당치않게 말을 꾸미는 것이요, 뜻의 세 가지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이 열 가지 일은 성인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되므로 열 가지 악한 일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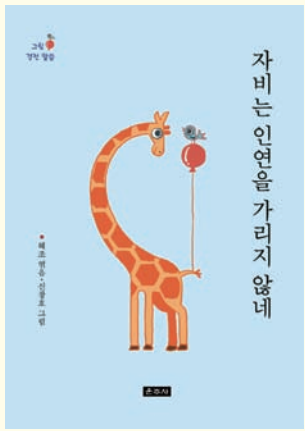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곧 열 가지 착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많은 허물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으면 강물이 바다로 들어 점점 깊고 넓어지듯이 죄가 무겁게 쌓일 것이다. 그러나 허물이 있을 때 스스로 그릇된 줄 알고 악을 고쳐 선을 행하면 죄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병자가 땀을 내고 차차 회복되어 가는 것과 같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께서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실보사 서령 정사님은 밀행사 행원님 전수님을 기록하셨습니다.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저자 혜조 엮음 | 신창호 그림
판형 137×194(국판변형) | 무선 | 248쪽
출간일 2020년 12월 24일
정가 14,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운주사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간단하면서도 우리 삶을 밝게 비춰주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어구를 가려 뽑아 삽화와 함께 엮은 책. 수행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의 길잡이가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가르침이 한 권 안에 가득 담겼다.

저자는 여러 경전과 논서, 선어록 등에서 우리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뽑아냈으며, 여기에 그 가르침과 어울리는 삽화를 그려 넣어 시간 날 때마다, 혹은 매일 한 구절이라도 살펴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성찰

하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보석 같은 가르침들을 통해 각자 자신이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한다.

혜조 스님은 봉녕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우리말 법화경』(역서), 『너를 위하여 밝혀둔 작은 램프 하나』 등이 있다. 삽화가 신창호는 ‘소리경전공덕회’(카페)에서 활동하는 재가불자로 경전 말씀에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 작업으로 불법을 홍보하고 있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2/1~28)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공오 / 정원규	불광출판사
4	나는 관참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법	법륜스님	정토
5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홍창성	운주사
6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묵스님	모네정원
8	불법의 대들보 마음챙김 (붓다의 고귀한 길따라)	활성스님	고요한소리
9	숫타니파타 (쿠타까니까야)	전재성	한국빠알리 성전협회
10	요가디피카 (아행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 현천스님	선요가

벽룡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취급
품목

- ▶방수공사전문업체
- ▶각종페인트 도·소매
- ▶인테리어 집칠
- ▶기와칠 벽돌방수
- ▶공사청부



삼화 페인트



대표 김치승

주소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92-261

전화 02) 873-9600 / 02) 877-3610

팩스 02) 873-4113

야간 02) 873-1892

핸드폰 011-283-3610

종립 동해중, 소프트웨어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2021년 「삼성 주니어 SW 아카데미」 운영학교로 선정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2021년도 1학기 「삼성 주니어 SW 아카데미」 중등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AI·SW 관련 전반적인 프로젝트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지원 받게 되었다.

「삼성 주니어 SW 아카데미」는 삼성전자의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 아래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회공헌 활동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SW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 측은 교사 연수, 학생 교재, PPT 강의안, 수업 활용 동영상 등 수업 자료 교사 지도서, 삼성 주니어 SW 아카데미 AI에디터, AI 보드 교재 등 1학급, 35명 내외의 인원 수업에 관련된 일체의 지원을 한다.

학교는 오는 3월 1일(월) ~ 7월 30일(금) 사이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 운영할 계획이며, 동해중 정보 과목 김재만 교사는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마친 상태다.

수업은 총 16단원, 총 3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AI와 SW의 이해, 실습, 윤리,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과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인근 교장은 “담당 교사를 주축

으로 학교가 꾸준히 SW교육 환경은 물론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운영학교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금번 교육은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경험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며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동해중=박재원 기자

조상영식 왕생성불 발원합니다

부산 정각사, 신축년 설날 차례 불공



정각사 득락전에서 신축년 설을 맞아 2월 12일 합동 차례불공이 봉행됐다. 이날 차례불공은 주교 법경 정사의 집공으로 득락전에 봉안된 영식과 함께 당일 동참한 가정의 영식을

추선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법경 정사는 “오늘의 불공으로 조상영식의 왕생성불과 모든 가정의 소원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불공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정각사 신정회 ‘훈훈한 쌀’ 회사

월초 불공 회향일에 십시일반 동참



정각사 신정회(회장: 정인숙, 부회장: 박정화, 총무: 구본정)가 독거 교도를 위한 회사금을 지난 2월 7일 월초 불공 회향일에 3층 서원당에서 정

각사 주교 법경 정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회사금은 쌀을 구매하여, 15명의 교도들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사진 왼쪽 법경 정사, 정인숙 회장

자비회, 해맞이빌에 보시금 전달

올해로 3년째 모자가정 자립에 도움



정각사 신행 봉사단체인 자비회(회장: 백일숙)가 지난 1월 18일 모자가정 돌봄 센터인 마리아모자원 해맞이빌(부산 연제구 소재)을 방

문하여 모자가정에 보시금을 전달하였다. 올해로 3년째다. 왼쪽부터 법경 정사 모자원 순정금 원장, 자비회 백일숙 회장, 서봉희 총무

부산불교연합합창단 임원 한자리

2월 19일, 신년하례 정각사 방문



부산불교연합합창단(회장: 정임숙) 소속 각 사찰 합창단 단장들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월 19일

신년하례 차 정각사를 방문해 법경 정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자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이상록 단장을 비롯해 연합회 정임숙 회장, 범어사 김옥희 단장 등이 방문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2000년 3월 창립 이후 부산불교 범음포교와 찬불가 합창의 대중화에 매진하고 있다.

총/지/문/답 ⑥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진호국가불공

전국 각 사원에서 상반기 49일 불공 임재를 하였습니다. 우리 종단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49일간 ‘진호국가불공’을 올립니다. 상반기 2월 20일에 시작하여 4월 8일에 마치고, 하반기 진호국가불공은 5월 28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에 마칩니다.

진호국가불공은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호국모랑

회의 개설입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많이 개설되었으나,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과 불교내부의 모순에 의해 법맥이 끊어졌습니다.

총지종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진호국가불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에 근거하여 비로자나불의 결인인 ‘지권인’을 결하고 수호국계주진언인 ‘옴흠야호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의 49일 진호국가 불공은 종조 원정대성사님께서 「수호국계주경법」을 근거로 총기 4년(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여 스승과 교도가 다함께 5월 5일 월요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진하기로 결정한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알립니다

보원 종사 49재 봉행

일시: 총기 50년 3월 13일(토) 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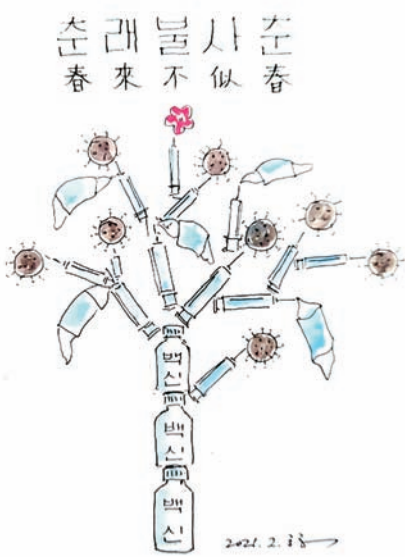
장소: 총지사 서원당

축하드립니다

[일행사] 행원심 전수 장녀
이지은 양 결혼

[만보사] 민순분 회장 외손녀
임수정 보살 장녀
조혜민 양 임용고시 합격

총 지 스 케 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흠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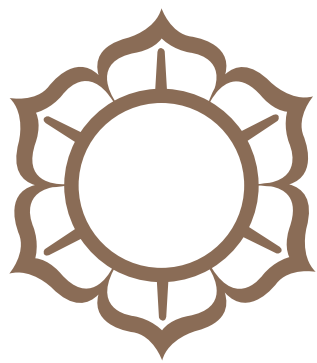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기교구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부산,경남교구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충청,전라교구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광안동) (051)752-1892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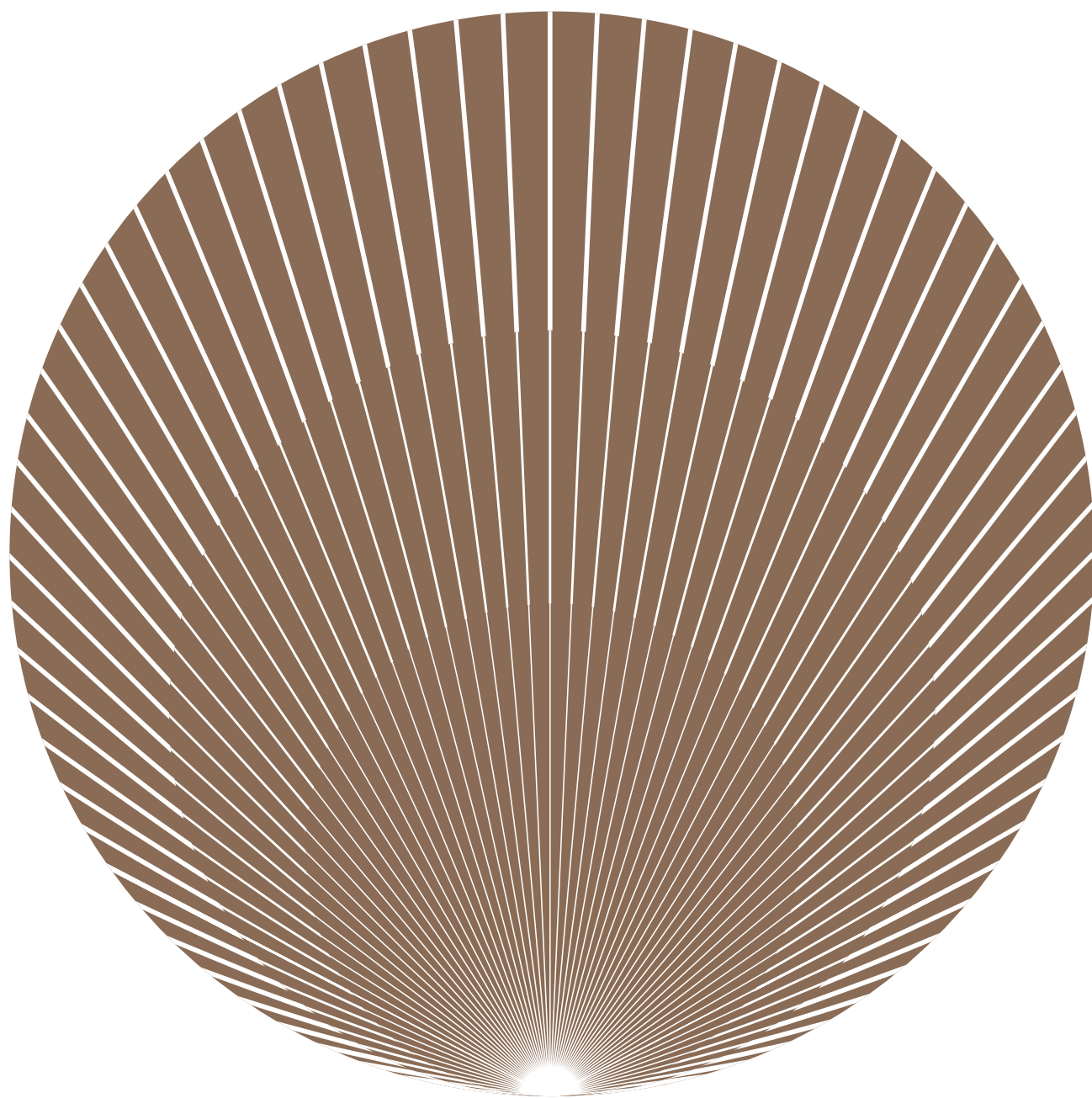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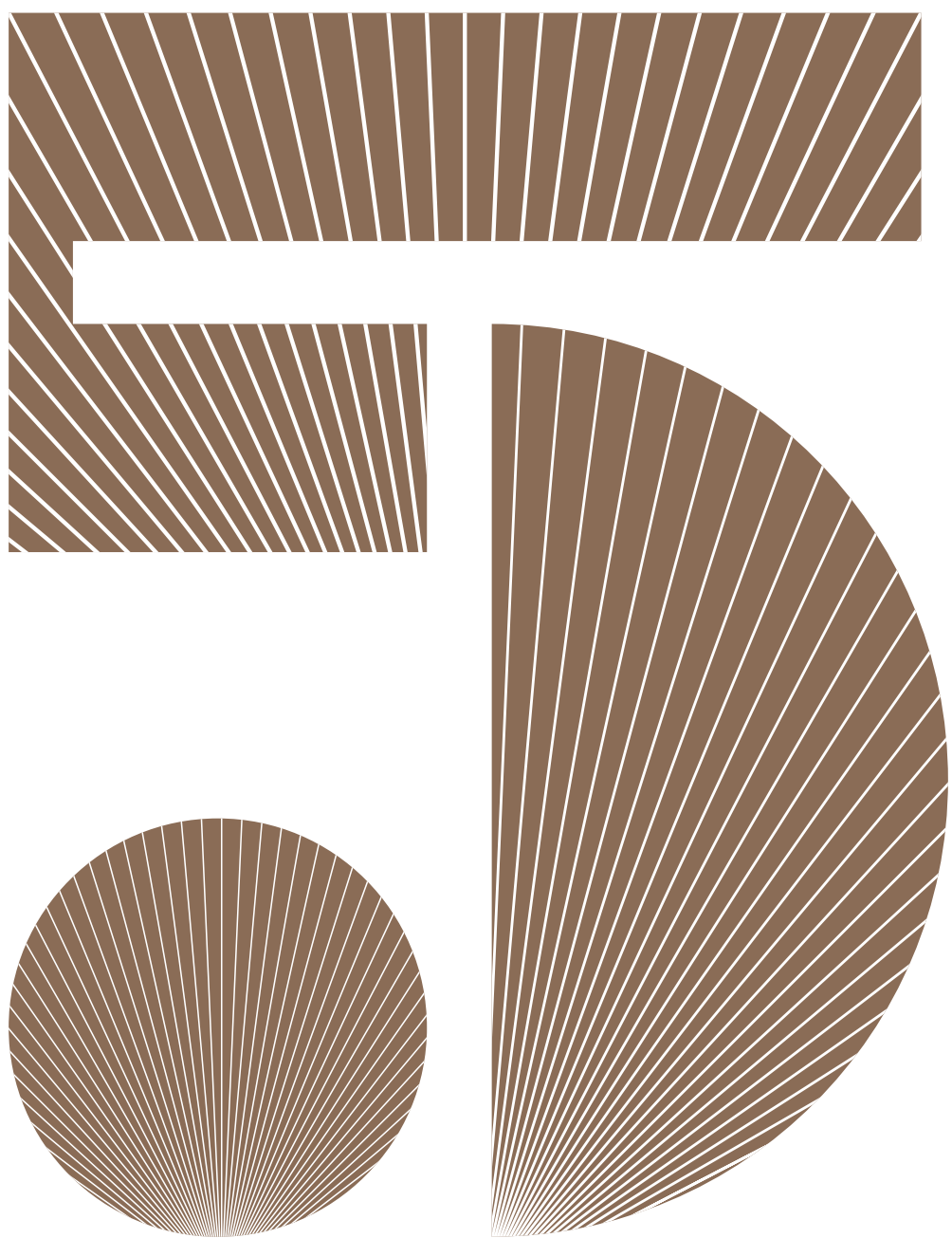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總
指
指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史



마감 일정

2021. 03. 31.



불교총지종